



박소현의 섹.시.토크

H가 결혼할 당시,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다. 서른의 그녀가 스물다섯의 어린 신랑과 결혼에 골인했기 때문이다.

서너 살 연상과 결혼한 친구들 신랑과 비교하면, 일주 10년 정도의 차이가 났다. 조금씩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피부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는 남편과 결혼식에 온 친구들은, H 남편의 상하지 않은 피부결과 빛나는 눈동자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새 7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H는 서른일곱이 되었고 남편도 삼십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네들은 아저씨가 더 된 삼십대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털어놓으며 예전보다 더 높은 강도로 H를 부러워한다.

“네 남편은 먹는 것만 밝히고 휴일이면 소파에 아예 붙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지?”

이런 자살한 이유들 외에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이 또 있었다.

“네 남편은 아직 한창이지?”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자 나이 마흔을 넘어서면 하루가 다르게 잡자리 욕구가 줄어들며 H에게 남아있는, 아니 H의 남편에게 남아있는 8년 남짓한 삼십대의 시간을 부러워했다.

“남자는 마흔이 되면서 꺾이지만 여자들은 삼



십대 후반이 한창 좋을 때잖아. 이 차이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 해. 너희는 둘 다 딱 좋을 때니까 얼마나 좋아. 네 남편이 시들해질 때가 오면 너도 시들해져 바가지 굵을 일도 없고 말이야.”

친구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아이도 둘이나 있긴 하지만, 그들의

잡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십대보다는 못하지만 친구들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러나 H에게는 차마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었다. 일단 잡자리를 위해 옷을 벗을 때마다 삼십대 초반인 남편의 몸매와 삼십대 후반에 아이 둘을 낳아버린 H의 몸매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남편은 매번

연하남 부러워 하지만 남편보다 몸이 일찍 늙는 것 부끄러움을 넘어 괴로움이지

H의 뱃살을 잡았다 놓고, H 허벅지에 대해 농담을 늘어놓았다. 여기까지는 그냥 참을 만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몇 주 전에 발생했다. 그날따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애무를 정성스레 해 준다고 H의 몸 이곳저곳을 해매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심각하게 말했다.

“왜 그래?”, “큰일났다. 이거 어쩌냐?” “뭘?”, “당신 거기에 흰 털이 났어.”

그 소리를 듣고 발뺌 몸을 일으킨 H는 자신의 음모에 나 있는 두 개의 흰털을 발견했다.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식욕이 모두 가실 정도였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H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염색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나는 족족 뽑아야 하나 고민도 시작되었다.

문제는 지금 뽑는다고 해도 머지않아 또 난다는 것이고, 그 속도가 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사실이다. 그날 H는 처음으로 연하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만약 연상이었다면, 그래서 이미 노화의 증상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었다면,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부끄러움을 느낄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H는 그날 친구들에게 차마 “너희도 거기 흰털이 나니?”하고 묻지 못했다. 친구들이 “응.”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다면, 뒷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아니.”라고 대답할까 봐 더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남편보다 일찍 늙어가는 것도 괴로운데, 친구들보다 일찍 늙어가는 건 더 괴로운 테니까 말이다. <연애칼럼니스트>

연하의 치명적인 단점

리빙 센스

잠자기 전 스트레칭

◇똥몸 일으키기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팔은 위를 향해 내리켜 펴고,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올린 상태에서 1초간 정지한 후 천천히 내린다. 복부를 탄력 있게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

◇다리 당기기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한쪽 팔로 반대쪽 발등을 잡는다. 엉덩이에 발뒤꿈치가 붙게 최대한 당긴 후 좌우 교대로 해주면 허벅지에 탄력을 준다.

◇다리 차기
허리와 다리를 반듯하게 펴고 엎드린 후 양팔은 턱 아래 편안하게 모은다. 한쪽 다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위를 향해 쪽 뺐다가 천천히 내려준다. 하반신의 보디 라인을 가꾸는데 효과가 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2일(음 11월 15일 丙戌)

36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다. 48년생 생각했던 직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60년생 고통을 정면으로 대용하라. 7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84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버려라. 손재가 크다. 행운의 숫자 : 04,33

37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력을 베풀어라. 49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61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라. 73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85년생 불면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행운의 숫자 : 08,30

38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해 있을 수 있다. 50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62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아라. 74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11,25

39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51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3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75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행운의 숫자 : 12,27

40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52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64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76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21,33

41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얽매이지는 말라. 53년생 결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65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하라. 77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행운의 숫자 : 23,26

42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자신의 안정을 기하라. 54년생 다부스런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66년생 두드러라. 그러면 열리리라. 78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행운의 숫자 : 03,38

43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5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67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79년생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05,34

44년생 실물이 예상되지 문단속을 잘하라. 56년생 아침은 무럭무럭 하우후는 활발해진다. 68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박한 일이 생긴다. 80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행운의 숫자 : 07,37

45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7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69년생 오래 동안 일일 해결된다. 81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회합이다. 행운의 숫자 : 09,29

46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라 마음이 편안해진다. 58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고 맹목이 될 것이다. 70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2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4,40

47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복하다. 59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71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83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17,2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조성민 기자회견 “양육권·재산권 모두 포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간판 스타인 ‘노총각’ 양준혁(39)이 짝사랑 고백으로 검색어 순위에서 등장했다.

양준혁은 지난 9일 방송된 모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김민정이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 화제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 양준혁은 김민정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를 통해 “귀여우면서도 지적이다”며 “큰 게임이 있으면 시구자로 모시겠다”고 밝혀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10일 2009학년도 수능능력 시험 성적이 발표되면서 ‘수능’이 또다시 인터넷 세상을 휩쓸었다. 수능결과를 받아든 학생들은 자신의 등급과 지원 가능한 대학을 물색하느라 분주한 손길을 이었다. 성적 발표 전날인 9일에는 수능성적 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온라인 교육업체에서 이

날 오후 ‘2009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교육 당국이 수능 성적 자료 사전 유출에 대한 조사가 나섰다.

수능 성적 발표와 함께 박창희라는 낯선 이름도 검색어 순위에서 등장했다. 네티즌의 클릭 세례를 받은 박창희(18)군은 2009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서울 환일고 학생. 네티즌은 경이로운 만점 소식에 놀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놓고 고(故) 최진실의 유족과 갈등을 빚어온 최씨의 전남편 조성민도 검색어 순위에서 이름을 올렸다. 조성민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아버지로서의 의무만을 다하겠다고 밝혀 유족과의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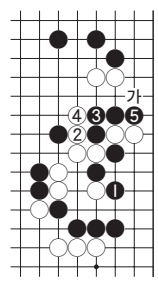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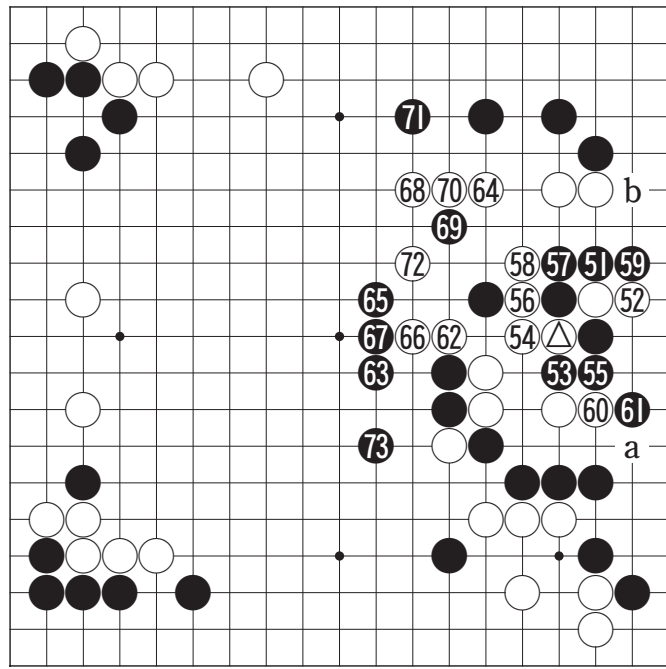


조성민이 지난 8일 유족측 대표로 나온 변호사와 함께 두 자녀의 양육과 재산권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불만없는 절충

페어부 결승 4보(51~73)
白 함영우·송예슬 黑 오창석·이수빈 (전라남도) (경기도)



<참고도>

백 53으로 두었으나 어차피 ‘가’는 선수다. 그러므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깨끗하

게 호구칠 자리로 그랬으면 걱정없이 바깥쪽에서 싸울 수 있었다. 백 60으로 밀고 내려가자 ‘a’로 찢혀 우변을 차단하는 수가 눈에 가시 되고 있다. 백 62로 찢히는 수순이 돌아와서는 백이 수습에 성공한 모습이며 흑도 우변과 우상귀에 실리를 차지해 불만이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흑 65는 두터운 곳이나 ‘b’로 넘어가 실리를 챙기고 싶다. 이 수를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귀를 침입하는 맛이 남는다. 흑 73까지 호각의 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209>

you have plenty of time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A : I need to run to the store before it closes.
B : When will the store close?
A : At 10 : 00
B : Oh, you have plenty of time.

A : 난 그 가게로 빨리 가봐야겠다, 문 닫기 전에...

B : 그 가게는 언제 문을 닫니?

A : 10시에

B : 아,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 * need to ~ = ~해야 한다.
* close : 영업을 마친다
* plenty of ~ = 충분한~

* 그 사람들은 언제 올 거니?
= When will they co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우우 니혼고 <1209>

體の具合(ぐあい)が悪(わる)いんじゃないの?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A : あら、もうお風呂から出たの?
B : 長く湯船(ゆふね)に浸(ひた)っていると、のぼせてしまって、心臓(しんぞう)がドキドキするんだ。

A : どこか體の具合(ぐあい)が悪(わる)いんじゃないの?

B : 大丈夫。そんなんじゃないよ。

A : 어머, 벌써 목욕 다 했니?

B : 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A : 어딘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B : 괜찮아. 그런 것 아니야.

- * のぼせる : 현기증이 나다
* 具合(ぐあい)が悪(わる)い :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286>

我爸爸是警察。 아버지는 경찰이세요

A: 你爸爸做什么工作?
Ni baba zuo shenme gongzuo?
니 아버지는 어떤 직업?

B: 我爸爸是警察。
Wo baba shi jingcha.
위 아버지는 경찰.

A: 你妈妈做什么工作?
Ni mama zuo shenme gongzuo?
니 어머니는 어떤 직업?

B: 我妈妈是老师。
Wo mama shi laoshi.
위 어머니는 교사.

A: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B: 제 아버지는 경찰이십니다.
A: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B: 제 어머니는 선생님이십니다.

做 [zuo] 하다
工作 [gong zuo] 일
警察 [jingcha] 경찰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옆)>
☎ 383-1605

한자 이야기 <926>

乘風破浪(승풍파랑) 탈승, 바람 풍, 깰 파, 물결 량

승풍파랑(乘風破浪)은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친다는 뜻으로, 원대한 포부를 비유하거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감을 비유한다. 이 말은 남북조시대의 송(宋)나라 사람 종각(宗鑑)이 한 말에서 유래한다.

종각은 어려서부터 지용(智勇)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종각이 14살 때, 형 종필(宗泌)의 결혼식 날 밤 집에 10여 명의 패강도가 들었는데, 종각이 강도들과 맞서 싸워 모두 물리쳤다고 한다. 또 종각이 임음(林隱, 지금의 베트남)을 정벌하는 원정군의 부관이 되었을 때, 임음의 왕은 코끼리를 앞세워 공격하여 와서 송나라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때 종각은 병사들을 사자처럼 꾸며 코끼리 때 앞에서 춤을 추게 하였다. 그러자 코끼리 떼가 놀라 달아났고, 송나라 군대는 그 틈을 타서 임음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종각이 어릴 때, 하루는 숙부 종봉(宗奉)이 잠자 무었이 되고 싶냐고 묻자, 종각은 “거센 바람을 타고 만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願乘長風破萬里浪)”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장풍파랑(長風破浪)’이라는 말도 나왔다. (宋書, 宗鑑傳)

<한예린(韓睿嫻)>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